



2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의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증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15605@srb.co.kr

5·18 가짜뉴스 유튜브로 대응한다

기념재단, 5월부터 전문 채널 운영 '5·18TV'로 검색 70여편 업로드

5·18기념재단은 5·18왜곡대응 유튜브 전문 채널 '5·18TV'를 2일부터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봄을 시작으로 '흥어택배', '북한군 침투설', '귀족유공자설' 등 온라인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극우 왜곡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울

초부터 5·18관련 전문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오고 현재 70여편의 영상자료를 업로드했다.

재단은 현재 서울, 부산, 충남, 광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 전문 사회적기업들과 수시로 새로운 내용과 스토리를 기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0여편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유튜브 전문채널 '5·18TV'에서는 '5·18완벽정리', '5·18왜곡과 진실' 등 왜곡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와 5·18의 진실을 담은 다양한 다큐영상을 볼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TV'나 '5·18TV', 또는 '오일팔TV'로 검색가능하다.

서충삼기자 zorba85@srb.co.kr

7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중형

대법원, 죄질 불량 17년형 확정

미성년자 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딸 A(21)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혼한 뒤 A씨를 모친에게 맡겼으며, 2011년 딸을 데려와 직접 키우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 확대했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고 매우 가혹적이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부모로서 양육은 커녕 경제적으로도 딸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 등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뉴스

“광주 출동한 무장 헬기에 탄약 지급”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전 항공단 하사 최종호씨 증언 "반납했을 때 3분의 1로 줄어" 조영대 신부 "목격자 더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항공부대에서 탄약병으로 복무했던 전직 하사관이 무장헬기에 기관총 탄약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형사8단독·재판장 장동혁)에 출석한 전 육군항공부대 31항공단 하사 최종호씨는 "광주로 출동하는 코브라 2대와 500MD 헬기 4대에 기관총 탄약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육군 31항공단에서 탄약관리하사로 복무하던 1980년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 오전에 탄약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탄약을 지급했다"며 "군 생활 3년 사이 전투용탄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고폭탄은 전시에만 사용하는 탄으로 육군본부의 명령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이어 "20mm 고폭탄과 실탄, 7.62mm 기관총 탄약 등을 4통 지급했고 상시 비상 대기 중인 코브라와 500MD 헬기에도 한통씩 추가 지급했다"며 "사용처를 몰랐으나 묻지 말고 그냥 내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30일께 반납을 받을 당시 3분의 1가량의 탄약이 비어서 돌아왔다. 고폭탄은 사용되지 않았다. 탄약은 링크돼 있어서 분실하거나 두고올 수 없다"며 "당시 무장헬기가 출동할 장소는 광주밖에 없어서 광주로 간 것으로 기억한다. 헬기 조종은 대위나 소령이, 사격은 준위가 한다. 반출 당시 다섯장 분량의 업무일지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씨의 주장이 당시 헬기 조종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전씨측 변호인의 질의에 최씨는 "자기들이 몰랐는데 말을 하겠느냐"고 답했다.

최씨는 또 "하사관들에게 광주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비참했다'는 말을 했다"며 "31항공단의 당시 관계자들은 활동 기기와 실탄 소모 여부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의 뒤를 이어 증언에 나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당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평신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영대 신부는 "생전 조비오 신부님으로부터 1980년 5월 21일 호남동성당에서 다른 신부들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조비오 신부만이 남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들었다"며 "여기에 있었던 또 다른 신부님 역시 500m 인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에 조비오 신부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평신도를 10여년 전쯤 알게 돼 이야기를

들게 됐다"며 "그에 따르면 당시 조비오 신부가 자신을 부르며 '이리 와보라, 헬기로 다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생전 조비오 신부는 이 평신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워낙 많은 이들이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식적인 증언은 남기지 않았다"며 "우연히 내가 만나게 된 평신도가 이같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조사된 것은 당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며 "이미 우리는 헬기 기총소사가 있음을 알고 있고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 듣고 있다. 존경받는 성직자인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실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비오 신부님은 나의 멘토였고 5·18 기간 동안의 힘든 이야기를 자주 전해 주셨다. 사제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에 모독감을 느낀다"며 "아무리 변명하고 조작해도 진리는 승리한다. 전씨는 역사 앞에 회개하라. 심판이 두려운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약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충삼기자 zorba85@srb.co.kr

전 교육관 관장 해고무효소송서 패소

법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광주 모 교육관 전 관장이 법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일 전관장 A씨가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법인은 광주시로부터 특정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이 교육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B법인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사항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해고를 위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다. 절차

상 흠결이 있다. 해고 사유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법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했다. B법인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A씨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교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규정 중 다른 규정을 살펴봐도 A씨는 법인으로부터 교육관의 운영·인사·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업무 집행에 관해 법인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가정에서 만나는 천로역정의 세계!

IPTV 및 케이블TV VOD 서비스 개시!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간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원지 모르게 책을 눈을 땔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인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여름성경학교 단체관람 문의 | ☎ 062.376.8500 (광주CBS 총무국) 수입/배급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전국 극장 절찬상영중